

## 환경보전을 위하여 논을 보전함과 동시에 넓혀가자!



권 순 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쌀은 우리 민족에게는 주식이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재화였고, 언제 어디서 무엇과도 교환이 가능한 돈이었다. 정치와 경제의 축은 쌀이었고, 문화와 종교의 상당한 영역까지 쌀이 차지했다. 쌀이란 말의 어원은 설이 분분하지만 씨알의 단축 또는 살(肉)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그럴듯하다. 또한 쌀은 살다(生) 또는 사람과 말 뿌리가 같다. 쌀이야말로 한민족의 삶 자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쌀을 생산하는 농지를 우리는 논이라고 한다. 그러나 논은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땅인 것만은 아니다. 논농사는 우리의 국토에 알맞은 농업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우리의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의 선조는 경사지에 평평한 논을 조성하여 잘 관리하고 그곳에 관개를 하거나 홍수방지, 배수개량을 해왔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홍수가 생기기 쉽고, 경사지이란 토양침식이나 산사태가 생기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논을 만들고 치수공사를 하며, 관개배수를 요령있게 하였다. 농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긴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쌓아온

우리의 논과 그것을 뒷받침해 준 관개배수조직은 정녕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인류적 유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주곡인 쌀은 1977년을 기점으로 자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갈구하던 소원이 처음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원성취를 기뻐할 사이도 없이 지금은 쌀의 과잉생산 추세 속에서 생산감축을 해야 하고 또한 쌀의 개방화 움직임 속에서 논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논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보전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설의 하나다. 원래 국토를 인간생활에 영속적으로 알맞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생활 중에서도 농업은 광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자연을 개조한다. 자연개조의 과정에서 영속적으로 식량생산을 확보하고 또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의 역사가 수 많은 실패의 실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나라 논농사의 영속성은 뛰어난 바 있다. 만약 논농사가 아니고

발농사라면 비가 많이 오는 경사지의 조건에서는 토양침식이 심하게 발생하고 홍수에 의한 피해도 아주 컸을 것이다.

논의 환경보전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물환경보전 기능 ② 국토보전 기능 ③ 대기보전 기능 ④ 생물상보전 기능 ⑤ 보전·휴양 기능 등이다. 물환경보전 기능으로서 중요한 것을 들자면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수질정화 등이 있고, 국토보전 기능으로서는 토양침식방지와 토사붕괴방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대기보전 기능으로서는 대기조성개선과 대기정화, 기후완화가 있다.

그러나 논은 이러한 공익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논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메탄가스를 상당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논이 환경에 끼치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負)의 효과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경작지와 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토양침식과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농업의 푸르름, 농경지의 환경보전 기능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서 농업 조방화에 의한 환경부하 삭감과 지속적 농업에 의한 환경보전을 조합한 농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농림업이 가지는 생산면 이외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이미 몇몇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평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논은 주곡생산 기능과 함께 많은 환경보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대부분 농가에서 논을 유지 관리를 잘 할 때만이 적절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며 경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다. “한국에서 쌀이 필요한가?”라는 논의와 함께 “한국에서 논은 필요한가?”라는 논의도 필요하다. 국토환경보전의 한 부분에 불과한 습지조성, 갯벌보호, 유기농업 등에 온통 정신을 쏟을 것이 아니라 농지 특히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 논이 갖는 국토환경 보전적 의의를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보호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먼 장래를 꿰뚫어 보고 정책을 세움으로써 국토도 지켜지고 식량도 확보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있고 자급률은 극도로 낮으며 그리고 논을 포함한 농경지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논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후손에게 환경적으로 건전한 풍요로운 삶을 물려줄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논농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70년전 일제하에서 실시된 산미증식 15개년 계획과도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전체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